

The Role of Religious Imagination in Religious Education: Centering on Mark Johnson's Concept of Moral Imagination

Jinsu Hwang
Sunmo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rk Johnson's concept of moral imagination and to connect it with religious imagination, thereby proposing the role and applications of religious imagination in the context of religious education.

[Contents] Focusing on Johnson's ideas—image schema, metaphorical mapping, prototype effects, and narrative structuring—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moral imagination and applies it to religion. It argues that religious imagination serves as a core capacity that connects archetypal experiences of religious traditions to everyday life, shaping religious meaning. In line with the 2022 revised curriculum Life and Religion, four educational components are proposed: 1) reflection on archetypal experiences in religion, 2) metaphorical and narrative connection to one's own life, 3) exploration of ultimate meaning, and 4) creative application to real-life issues. Textbook analysis explores their practical applicability.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religious imagination encompasses moral imagination and functions as a cognitive and practical capacity that harmonizes the tension between transcendence and reality. Second, religious education should go beyond mere doctrinal instruction to become holistic education that enables learners to actively integrate religious traditions into their own lives and practice social responsibility and peace. Religious imagination can serve as a core competency in this transformative process.

[Keywords] Religious imagination, Moral imagination, Religious education, Mark Johnson, Metaphor, Archetype

* **Corresponding author** Jinsu Hwang (Department of Theology, Sunmoon University)

E-mail : jinsuhwang@gmail.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종교교육에서 종교적 상상력의 역할: 마크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황진수

선문대학교 신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마크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종교적 상상력과 연결하여 종교교육에서 종교적 상상력의 역할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존슨이 제시한 영상 도식, 은유적 사상, 원형 효과, 서사적 구조화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적 상상력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종교 영역에 적용하여 종교적 상상력이 종교 전통의 원형적 경험을 현재의 삶과 연결하고 종교적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역량임을 논의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삶과 종교>에서 강조하는 융합적 사고력과 연계하여 종교적 상상력의 교육적 함의를 네 가지 실천 요소, 즉 1) 종교의 원형적 경험 숙고, 2) 자기 삶으로의 은유적·서사적 연결, 3) 궁극적 의미 탐색, 4) 창조적 실천으로 제시하고, 교과서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적 상상력은 도덕적 상상력을 포괄하며 초월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조화롭게 매개하는 인지적·실천적 능력이다. 둘째, 종교교육은 단순한 교리 전달을 넘어 학습자가 종교 전통을 자기 삶과 연결하고 사회적 책임과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교육이어야 하며, 종교적 상상력은 그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

[주제어] 종교적 상상력, 도덕적 상상력, 종교교육, 마크 존슨, 은유, 원형

I. 들어가며

마크 존슨(M. Johnson)은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한 이론이 어떤 불변의 도덕 법칙을 도출하고 다양한 현실을 그 법칙에 수용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이해’에 대한 이론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여기서 도덕적 이해란 도덕성과 관련한 개념, 상황의 구조화, 최선의 도덕적 행위에 관한 추론 등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고 전개되는지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가리킨다. 존슨은 “도덕적 이해가 그 성격상 기본적으로 상상적”(Johnson, trans., 2008: 378)이라는 점을 그의 인지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인지 능력이 바로 ‘도덕적 상상력’(moral imagination)이다.

도덕적 상상력 안에는 공동체에 축적된 경험의 원형적 구조, 은유, 서사, 미학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본적인 도덕 개념들, 예를 들어 권리, 정의, 사랑 등은 그 자체 안에 특정 공동체 구성원이 폭넓게 공유하는 경험의 원형적 구조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도덕적 판단상황은 원형적 사례를 비원형적 사례로 확장할 때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은유적, 서사적, 미학적 판단이 상상력을 통해 발휘된다. 기존 도덕 이론이 이성인 세운 초월적, 보편적 도덕 법칙을 현실에서의 경험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존슨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 도덕적 이해와 판단이 벌어지는 인지 과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개념화, 상황 구조화, 행위 선택의 전 과정을 도덕적 상상력이 휘감으며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최선의 도덕적 이해와 판단을 구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물론 이러한 도덕적 이해에 내재한 상상력이 특정한 상황에서 ‘옳은 행위’를 규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Johnson, trans., 2008: 375), 존슨의 핵심 주장은 마치 자동차의 기능을 알아야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있듯이, 도덕적 이해의 실제 과정 및 상상력의 역할과 기능을 알으로써 현실의 도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Johnson, trans., 2008: 375-378).

이와 같은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에 관한 논의는 법칙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몰두해 온 기존 도덕 이론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성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매개로 정서, 의지 등 인간 내면의 여러 속성들을 공동체와의 경험과 연계해 종합하고 실천으로 이끄는 방식은 윤리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동체 구성원이 은유적, 서사적으로 공유하는 경험의 원형적 사례로부터 다양한 비원형적 사례로 확장하여 성찰할 때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점은 오늘날 종교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중등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은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에서 ‘종교학적 종교교육’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종교성 교육’으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Kang et al., 2013: 16-21). 오롯이 중립학교에서 이뤄지는 종교교육의 현실상 과거에는 종교적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리 중심의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이 주로 행해져 왔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발표된 <삶과 종교>

과목의 지침이 강조하듯이, 최근 종교교육은 교리 중심의 신앙교육, 지식 중심의 종교학 교육을 넘어서 “종교 전통으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의지 그리고 실천력을 기르고, 종교적 지식과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Ministry of Education, 2022: 93)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종교교육에서의 ‘융합적 사고력’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 등의 속성을 전인적으로 다루는 종교성 및 영성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Joo, 2019A: 435-446). 실제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인간의 영성적 차원도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Ministry of Education, 2022: 93)하며 이전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종교성과 영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유형적으로 볼 때, 종교교육에서의 융합적 사고력은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과 닮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교육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력을 ‘종교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물론 윤리학이나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적 상상력과 종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상상력은 개념 정립에서도, 그 기능이나 역할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다만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 지닌 상상력은 도덕과 종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종교교육의 맥락에 적용해보고, 종교적 상상력이 종교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먼저 1)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의 개념과 구조를 알아보고, 2) 원형적 경험, 은유, 상상력의 역할을 종교교육의 맥락에서 해석해보며 도덕적 상상력을 종교적 상상력으로 연결, 성찰한 후, 마지막으로 3) 종교적 상상력이 종교교육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까지 도덕적 상상력에 관한 논의는 윤리학이나 도덕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주로 다뤄졌고(Bae, 2008: 417-442; Kim, 2006: 193-225; Shin, 2012: 187-204; Park, 2011: 117-139; Kim, 2011: 217-237), 종교교육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맥락에서 계시의 측면과 연계되어 다뤄지곤 했다(Joo, 2019A: 419-454; Joo, 2019B: 227-254; Kim, 2000: 355-378; Moon, 2023: 267-291). 본 논문은 이제껏 잘 다뤄지지 않은 종교교육의 보편적 맥락에서 종교적 상상력의 기능과 역할을 탐구하고, 종교교육에서 도덕적, 종교적 상상력의 역할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II. 도덕적 상상력의 개념과 구조

상상력, 즉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마음속에서의 이미지 형성 능력과 관련이 깊다. 상상력은 이성과 감성이 상호작용하면서 감각 경험과 기억을 통해 저장된 관념들을 결합, 변형, 확장하거나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사물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신기능”을 가리킨다(Craig, 1998: 705; Joo, 2019B: 229). 여기서 사물의 이미지는 하나의 개별 관념에서부터 거대한 세계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 상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phantasia’가 라틴어 ‘imaginatio’로 번역됐고, 영어 ‘imagination’의 어원이 되었다.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왔고, 그 근원은 서양철학의 흐름을 양분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플라톤은 인간 영혼의 이성적 관조, 사유를 통해 이데아에 대한 참된 인식을 추구하였는데, 이데아의 모상(模像)에 불과한 감각적 영역의 사물을 다시 한번 모방하여 심적 영상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이 진정한 지식에 다가가려는 이성의 작용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효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Hahn, 1983: 143; Kim, 2000: 358). 플라톤에게 있어서 상상(eikasia)은 감각에만 의존한 환상이나 착각 수준의 앎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그가 예술을 모방의 모방으로 경시하였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플라톤의 사상은 이후 플라톤 계보의 철학에 영향을 미치며 상상력을 이성에 반하는 능력으로 치부하거나, 상상의 힘을 예술, 문학 등에서의 창조성에만 국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형상(eidos)이 사물에 내재해있음을 강조하며 그의 스승 플라톤이 제시한 초월적 이데아 세계를 현실로 끌어들었다. 그 결과 감각적 경험은 사물의 본질에 관한 지식을 얻는 필수적 단계가 되었고, 감각 경험을 마음속 이미지로 재현, 창조하는 상상력 또한 감각과 지성 사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상력(phantasia)은 감각 경험이 끝난 후에도 그 흔적을 마음속에 재현하는 능력으로, 마음속에 형상(phantasma)을 남기며 지성이 그로부터 보편 개념을 추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 인지 기능이다(White, 1985: 484-487).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사상에서도 상상력(imaginatio)은 감각을 통해 형성된 마음속 이미지들을 보존, 재생, 조합하는 내적 감각 능력으로 설명된다. 상상력은 지성의 추상 작용을 위한 매개 이미지(phantasm)를 형성하고, 지성은 이 매개 이미지를 다루면서 더 추상적 차원의 개념적 인식을 도출한다(Aquinas, 1948: Pt.1, Q.85, Art.1).

근대 서양철학에서 인식론이 발달하는 가운데 상상력에 대한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계보의 흐름 속에 그 긍정적 역할이 부각된다. 데카르트, 흄, 칸트 등의 철학에서 상상력은 공통으로 감성과 지성 사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여기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영원불변한 본질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함을 두 철학 모두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점은 특히 칸트의 철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칸트는 구상력 혹은 상상력(Einbildungskraft)을 대상이 직관 속에 현존하지 않아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Kant, 1965: A120-121)으로 간주하는 한편, 오성이 범주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오성이 선험적 종합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감각의 잡다한 자료를 선험적 직관 형식을 통해 정돈하는 능력으

로 규정한다(Kant, 1965: A124). 상상력에 대한 칸트의 시각은 감성과 오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나, 그 역할이 시공간이라는 직관 형식의 ‘선험적’ 틀을 감각의 잡다한 자료에 적용하는 데 국한되어 있는 점에선 제한적이다. 이는 칸트의 후기 철학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전기에서는 상상력의 감성과 오성 모두를 중재하는 능동적, 자율적 기능이 강조되지만(Kant, 1965: A98), 후기에서는 상상력의 기능이 오성 안으로 흡수되어 오성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Kant, 1965: B152).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러한 칸트 철학의 인식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존슨의 접근 방식은 칸트의 방식과 닮아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가기 때문이다.

칸트를 넘어서는 나의 걸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바는, 의미와 합리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점에 관한 칸트의 최대의 공헌은 상상력에 관한 그의 작업이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체계는 상상력을 이성과 이해에서 확연하게 떼어내는 것을 그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나는, 그의 체계가 전제로 하는 몇 가지 형이상학적·인식론적 이분법이 엄밀하고 절대적인 것임을 부정하고 싶다. 상상력을 중심에 놓음으로 해서, 상상력의 여러 가지 구조는 의미의 방대하고 신체화된 복합체이며, 개념파악이나 명제는 이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Johnson, trans., 1992: 277).

존슨은 칸트가 상상력이 감성과 오성 사이를 매개하며 사실을 포착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근대 철학에서 재조명한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물 자체와 현상을 갈라놓는 그의 형이상학적·인식론적 이분법이 상상력의 역할을 여전히 이성이 지닌 절대 법칙의 틀을 감각 경험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국한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일찍이 헤겔이 지적하였듯이, 칸트 인식론의 결정적 한계는 의미 파악을 위한 틀(범주)이 선험적으로 주어졌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칸트의 순수 이성에서 순수하다는 것은 선험적이란 뜻이고, 경험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은 선험적이지 초월적이다. 플라톤의 초월적 이데아 세계가 칸트 철학에서 예지계(叡智界)의 선험적, 보편적 형식으로 부활하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은 그 객관적 형식을 감각 경험에 부여하기 위한 준비 기능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상상력이 의미 및 개념 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논의에서도 출발점이 된다. 다만 존슨은 상상력이 의미 파악을 위해 적용하는 관점이 선험적, 초월적으로 주어진 닫힌 체계가 아니고,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에 근거한 역동적이면서도 열린 체계임을 주장한다. 존슨에 따르면, 경험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이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에 근거하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형식의 파악과 적용이 신체 활동에서 발현하는 영상

도식과 은유적 투사의 과정을 통해 전개되며, 이 모든 과정이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경험은 뿌리부터 ‘상상적 구조’를 갖고 있다”(Noh, 2013: 115). 칸트 철학에서처럼 상상력이 감성과 오성 사이를 제한적으로 매개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지성, 의지 전반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같은 존슨의 접근 방식은 맹목적으로 초월에 기대는 것이 아닌,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empirically responsible philosophy)을 추구한다(Lakoff, & Johnson, trans., 2002: 42-43).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이론은 그가 조지 레이코프(G. Lakoff)와 함께 발전시킨 체험주의(experientialism) 철학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체험주의는 전통적인 객관주의와 허무주의적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철학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Noh, 2013: 9). 존슨은 인간의 경험을 신체적/물리적 층위에서 정신적/추상적 층위로의 확장이라는 구조로 이해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신체적/물리적 층위의 경험을 통해 공유되는 원형적 영상 도식 및 패턴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한에서는, 또한 정신적/추상적 층위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문화적, 언어적 변이가 증가한다고 보는 한에서는, 극단적인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모두 경계한다. 인간의 인지와 이해가 신체적 경험과 문화적 맥락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도덕성 역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의 적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 상상력을 통한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은 여러 층위의 인지적 구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그 주요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 도식’(image schema)이다. 영상 도식이란 “추상적인 수준에서 심적 표상을 조직하는 구조”로서, “지각, 공간 속에서의 신체 운동, 그리고 대상의 물리적 조작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Johnson, trans., 1992: 78) 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고 의미를 파악하며 그 의미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선 “행동·지각·개념작용이 패턴과 질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식이란, 이런 동적인 질서 부여의 활동들에 갖추어지는 반복되는 패턴·형·규칙바름을 말하는 것이다.”(Johnson, trans., 1992: 85) 영상 도식은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영상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경험과 이해의 과정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활동의 구조”(Johnson, trans., 1992: 86)이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맥락에서 매우 다양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Noh, 2013: 77-78).

영상 도식의 예로서, 존슨은 ‘길’(path), ‘부분-전체’(part-whole), ‘충만-공허’(full-empty), ‘반복’(iteration), ‘주기’(cycle), ‘균형’(balance), ‘표면’(surface), ‘용기’(container), ‘중심-주변’(center-periphery) 등을 제시한다(Johnson, trans., 1992: 217). 대표적으로 ‘길’ 혹은 ‘경로’의 도식이 작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길이 존재하고, 어떠한 길이든 출발점과 도착점, 그리고 둘 사이를 잇는 인접한 장소들을 지닌다. 길 자체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인간이 길을 갈 때는 목적이 있으므로 길이란 인간의 인지 안에서 시작점에서 도착점을 향해 가는 경로라는 구조를 갖는다. 인간의 경험과 언어 활동에서 ‘길’이라는 도식은 빼

놓을 수 없는 일반적, 추상적 인지 구조로서, “이 명확한 내적 구조는 구체적·공간적인 영역에서 추상적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은유적 사상에 대해서 기초를 제공한다.”(Johnson, trans., 1992: 201) 예를 들어, ‘행복을 추구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는 ‘길’이라는 영상 도식이 지닌 물리적 목적지의 은유적 투사인 셈이다.

둘째, 따라서 영상 도식은 자연히 ‘은유적 사상’(隱喻的 寫像, metaphorical mapping)으로 이어진다. 위 영상 도식의 예를 보면, 그 자체로는 어떤 구체적 영상이 아니면서도 완전히 추상적이지도 않은, 보편과 특수의 중간 단계 어느 곳쯤에 걸쳐있는 ‘은유적’ 특징을 지닌다. 존슨은 인지를 가능케 하는 기초적 토대인 영상 도식 자체가 은유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인지 과정 전반이 칸트식의 고정된 범주가 감각 정보를 주물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닌, 은유를 상상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의미의 창발 과정은 비환원적이며 다원적이다. 그 과정은 즉흥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유가 지닌 “대상, 사건, 상태, 원인, 관계들을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체계적으로 사상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다.”(Johnson, trans., 2008: 128) 신체 경험을 통해 발생한 “비명제적이고 선개념적인”(Noh, 2013: 74) 원초적 영상 도식이 정신적/추상적 층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른 다양한 변이가 복합적으로 개입하며, 인간은 그러한 인지 과정을 통해 의미를 부여한다.

도덕적 이해와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서두에서 도덕성과 관련한 이론이 ‘도덕적 이해’에 대한 이론이 돼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존슨은 도덕적 상상력을 통한 은유적 사상의 한 예로 결혼생활을 설명하면서, 생물학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유기적 통일’이라는 은유를 제시한다.

<표 1> ‘결혼은 유기적 통일’ 은유

<Table 1> The metaphor of ‘Marriage is organic unity’(Johnson, trans., 2008: 131)

생물학적 영역	결혼 영역
살아 있는 물리적 개체(A와 B)	사람들(배우자)
(두 개체로 구성된) 유기체 전체의 통일	배우자의 정신적, 법적, 심리적 결합
유기체의 창발적 속성	배우자 관계에서 창발하는 창조적 가능성
유기체의 A부분과 B부분의 상호작용 과정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사회적) 상호작용
A와 B가 서로에게 미치는 인과적 영향	배우자의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 영향

결혼을 ‘유기적 통일’이라는 은유로 바라보면 왜 부부가 상호의존적 존재로서 서로에게 호혜적 조력, 위로, 지속성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일부일처의 의무를 받아들이며, 통일성 유지 및 상호 성장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Johnson, trans., 2008: 132-141). 물론 이 은유에 담긴 함의는 고정적이 아닌, 도덕적 상상력의 숙고 과정에서 발현될 수 있는 잠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 밖에도 ‘도덕성은 건강이다.’, ‘악덕은 질병이다.’, ‘도덕적 행위는 올바른 길이다.’ 같은 은유들은 도덕적 추론을 구조화하며 추상적인 도덕 개념을 구체적이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올려 이해시킨다.

셋째, ‘원형 효과’(prototype effects)다. 존슨에 따르면, 위 ‘결혼은 유기적 통일’이라는 은유의 예에서 보았듯이, 이미 기본적인 도덕 개념들(권리, 정의, 사랑 등)이나 도덕 행위를 규정하는 다양한 개념들(살인, 거짓말, 약속 등)은 “내적인 원형적 구조”(Johnson, trans., 2008: 379)를 갖추고 있다. 도덕적 개념들은 고전적 도덕 이론에서 가정하듯 명확한 경계와 필요충분조건을 갖지 않는다. 엘리노어 로쉬(E. Rosch)가 그녀의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에서 밝혔듯이, 도덕 판단은 특정 상황이 원형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Rosch, 1978: 27-48).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낯선 타자에 대한 차별 없는 현대의 원초적 모형을 제공하는데, 이를 ‘원형’(prototype)이라 부르는 이유는 오랜 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기 때문이다(Johnson, trans., 2008: 379). 하지만 일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순간은 대부분 비원형적 사례들이다. 따라서 비원형적 사례를 맞닥뜨렸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적절한 원형적 사례들을 “상상적으로 사용하는 것”(Johnson, trans., 2008: 383)이다. 다양한 원형적 사례를 상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또한 감정적으로도 온당한 이해와 판단이 도덕적 상상력의 숙고 과정에서 펼쳐진다.

원형은 공동체의 문화적 환경에서 체험을 통해 습득되고 공유된다.¹⁾ 물론 원형은 언제나 다양한 맥락에서 상상적 변형을 수반하는 은유적 성격을 지니므로 고정 불변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지 과정에 공통으로 내재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원형 안에는 구체적 상황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이 담겨있어서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Johnson, trans., 2008: 382). 이러한 원형의 특징은 조지 린드벡(G. Lindbeck)이 ‘문화-언어적 대안’(cultural-linguistic alternative)이라고 명명한 종교 경험의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르면, 종교 공동체에서 구성원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언어의 쓰임 방식이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틀이 된다(Lindbeck, 1984: 34-40). 린드벡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언어 쓰임새가 경험을 맥락화하는 원형 틀이 된다고 보지만, 존슨은 신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영상 도식과 은유의 상상적 구조가 원형적 사례를 형성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상상력이 이해에서 실천에 가까워질수록 중요해지는 도덕적 ‘상황의 구조화’를 살펴보자. 상황의 구조화란 어떠한 서사적 구조(narrative structure)와 맥락 안에 상황을

1) 존슨에 따르면, 영상 도식의 경우엔 신체 경험에 따르므로 문화적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그 틀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지만, 원형의 경우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은유적 사상의 특정한 방식이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이므로 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위치하여 원형적 사례를 비원형적 사례로 확대, 적용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서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인간은 도덕적 상황을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하고 이해하며, 행위자, 동기, 결과, 교훈 등의 서사적 요소들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MacIntyre, 1981: 216). 따라서 같은 도덕적 상황을 다루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서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도덕적 함의를 갖게 된다(Johnson, trans., 2008: 383-394). 서사에 흐름 속에서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있다. 존슨은 다양한 서사를 상상함으로써 도덕적 추론이 갖는 풍성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도덕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도덕적 감수성을 발달시켜 주는 허구적 서사의 힘, 섬세한 구별 능력, 또 타인에 대한 공감 등은 우리 삶의 서사적 구조의 산물이다. 심지어 도덕 법칙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들, 즉 우리 자신과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며, 장기간에 걸쳐 그 법칙들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쓴다. 특정한 덕들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한 사람의 품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간 삶의 서사적 구조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특정한 덕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함축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상이한 맥락들 안에서 그 함축을 추적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서사적 탐색이 사실상 도덕적 추론의 전부다(Johnson, trans., 2008: 393-394).

영상 도식, 은유적 사상, 원형 효과, 도덕적 상황의 구조화는 모두 도덕적 이해와 판단의 중요한 요소들로서 단계적으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매우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이해의 전 과정과 결과를 가능케 하는 인간의 통합적 인지 능력이 바로 도덕적 상상력이다. 도덕적 상상력은 인간이 처한 도덕적 상황을 삶의 서사 구조로 구성하게 하고, 다양한 행위 가능성과 결과를 미리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주며,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상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도덕적 판단의 폭과 깊이를 확장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형적 사례를 비원형적 사례로 확대 적용하면서, 인간이 지닌 이성, 감정, 직관, 경험 등 다양한 인지적 자원들을 통합하여 총체적인 도덕적 이해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존슨은 이 과정이 곧 도덕적 인간의 ‘성장’이며, 성장 자체가 도덕적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Johnson, trans., 2017: 358-369).

인지과학 연구를 통해 귀결된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개념과 실체가 종교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종교교육에는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도덕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

1. 종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상상력 개념

종교교육에서 상상력의 역할에 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전통적으로 종교교육은 교리의 전수나 신앙의 확신, 이성과 신앙의 균형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상력은 오히려 신앙의 확실성을 흐리는 요소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기독교 종교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종교적 이해에서 상상력의 건설적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토마스 그룸(T. Groome)은 기독교 교육에서 상상력을 핵심적인 교육 자원으로 강조하였는데, 그는 상상력을 단순한 환상이나 비현실적 도피가 아니라 신앙 형성과 삶의 실천을 연결하는 해방적이고 변혁적인 인식의 힘으로 보았다. 신의 초월적 계시가 은유적 상징을 매개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신앙인의 삶에서 은유적 상징의 계시적 힘이 가장 우선하여 발휘되는 자리는 다름 아닌 상상력이다(Groome, 1998: 197-198). 그룸에 따르면, 상상력은 신앙의 진리를 현재의 삶에 연결해주는 매개로서, 기독교 비전을 오늘의 삶의 맥락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해석하게끔 이끈다(Groome, 1998: 196). 특히 ‘기독교 이야기’(the Christian Story)에 담긴 복음을 현재 상황에 투영하면서 기존 질서를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해방과 변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Groome, 1998: 139). 또한 그룸은 신의 이야기 속에 신앙인 자신의 이야기를 재서사화하는 데 상상력이 동원되며, 이 재서사화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함께 구성되고 공유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종교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마리아 해리스(M. Harris)는 기독교 종교교육의 ‘가르침’ 자체를 “종교적 상상력의 소산”으로 간주한다(Harris, trans., 2023: 31). 그녀는 ‘종교적’이라는 한정어와 ‘상상력’이 만날 때 특별한 종류의 ‘가치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본다(Harris, trans., 2023: 41-43). ‘종교적’이란 말은 특정 종교 전통의 특성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해리스는 ‘신비’(mystery), ‘신성함’(the numinous), ‘신비함’(the mystical) 등을 ‘종교적’이란 말의 보편적 특징으로 본다. 이들 표현의 공통점은 종교 전통의 상징이나 이미지를 매개로 어떤 초월적 실재를 지향한다는 점이며, 상상력의 활동을 조율하고 심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Harris, trans., 2023: 44-49). 종교적 상상력은 종교교육의 본질적 도구로서,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 초월적 실재를 체험하고 내면화하도록 돕고, 그 경험의 상징적 표현을 공동체 안에서 재구성하고 공유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종교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해리스는 미국 철학자 필립 휠라이트(P. Wheelwright)가 제시하는 상상력의 네 가지 방식, 즉 1) ‘직면하는 상상력’(confrontative imagination), 2) ‘조연한 상상력’(distancing imagination), 3) ‘합성적 상상력’(compositive imagination), 4) ‘원형적 상상력’(archetypal imagination) (Wheelwright, 1954: 76-100)을 종교교육의 맥락에 적용한다.²⁾ 휠라이트는 상상력이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작용 양식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해리스는

이를 신앙 형성과 종교교육의 방법론으로 재해석하였다. 첫째, 휠라이트의 ‘직면하는 상상력’은 상상력의 대상을 그 자체로 고유하게 바라보는 작용 양식인데, 해리스는 이를 ‘묵상적 상상력’(contemplative imagination)으로 변환하면서 “존재의 현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며” 모든 존재가 지닌 “신비적인 가능성”을 상기시켜 주는 양식으로 해석한다(Harris, trans., 2003: 50-51, 55). 둘째, ‘초연한 상상력’은 상상력의 대상을 그 자체로 놓아두도록 적절한 거리두기 함을 의미한다. 해리스는 이를 ‘금욕적 상상력’(ascetic imagination)으로 재해석하며, 종교교육에서 교육의 주제나 대상을 지나치게 조작하거나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을 경계하게끔 하고 그 자체가 지닌 성스러움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Harris, trans., 2003: 55-56). 셋째, ‘합성적 상상력’은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적 요소를 발견하여 연관성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연관성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하이데거가 ‘알레테이아’(aletheia) 개념을 통해 강조하였듯이, 합성적 상상력은 예를 들어 반 고흐의 <구두 한 켤레> 그림에 담긴 일상의 농부 장화가 새로운 의미를 조망하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한다(Harris, trans., 2003: 52). 해리스는 이 합성적 상상력을 ‘창조적 상상력’(creative imagination)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종교 전통에 내재한 창조의 힘을 교육 현장에 연결하여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 기존 현실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창조자가 된다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Harris, trans., 2003: 56).

마지막으로, 해리스는 휠라이트의 원형적 상상력을 종교적 맥락에서 ‘성례적 상상력’(sacramental imagination)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원형’(archetype)이란 말은 융의 심리학에서의 개념을 유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특정한 이미지가 숭고하고 심오한 의미를 구현하는 매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해리스에게 있어서 이러한 원형의 특성은 성례(聖禮, sacrament)의 가치와 통한다. 눈에 보이는 표지를 통해 신의 말씀과 은혜가 전달되는 성례야말로 상상력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가르침 그 자체가 성례가 되어 거룩함이 매개되는 상징적 의식 형태”(Harris, trans., 2003: 57)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성례적 상상력은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교교육에서 원형적/성례적 상상력은 다른 유형의 상상력을 포괄,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종교교육 자체가 곧 성례가 되기 위해선 그 전체 과정이 원형적/성례적 상상력을 통해 역동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여기엔 종교적 원형의 신비적 가능성을 묵상하고, 금욕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며, 창조적 해석의 힘을 발휘하여 현실을 변화하는 과정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2) 이 표현은 해리스가 각색한 표현으로, 휠라이트의 원문은 confrontative imagining, imaginative distancing, metaphoric imagining, archetypal imagining이다.

2. 원형에 기반을 둔 도덕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

앞서 살펴본 도덕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은 접근 방식 및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도덕적 추론 및 종교적 가치 판단의 과정은 감성, 오성, 더 나아가 영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인적 과정이며 여기에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상상력은 아무런 기반 없이 무(無)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습득된 원형을 출발점으로 하며, 상상력이 원형을 통해 객관과 주관, 과거와 현재, 고정과 변화, 법칙과 창조 등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물론 도덕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이 ‘원형’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존슨에 따르면 도덕적 상상력이 활용하는 ‘원형(prototype)’은 특정한 도덕적 개념,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품고 있는 사례로서, 은유적 사상의 방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광범위하게 합의되어 공유된 결과이다. 이 원형적 사례는 그 자체가 은유적 상징이므로 고정된 도덕 법칙으로 작용할 수 없고, 도덕적 추론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도덕적 상상력이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토대가 된다. 종교적 상상력에서의 ‘원형(archetype)’도 종교 공동체마다의 신앙과 전통에 내재한 특유의 이미지, 서사, 세계관이라고 볼 때 도덕적 상상력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종교적 상상력이 공유된 종교 경험으로서의 원형적 사례를 기반으로 종교의 핵심 가치를 현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창조적으로 실천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종교의 맥락에서 종교적 원형을 상상적으로 다루는 과정은 단순히 다양한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탐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종교성 및 영성에 힘입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와의 접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상상력과 차별성을 갖는다. 도덕적 상상력이 인간 공동체 내에서의 선한 삶을 추구한다면, 종교적 상상력은 초월적 실재와의 관계를 포함한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지닌다(Jónasson, 2014: 62-64).

해리스가 원형적 상상력을 성례적 상상력으로 전환하여 이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과 경험에 깊이 내재한 원형을 종교교육을 통해 상상적으로, 창조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은 성례를 통한 보이지 않는 초월적 실재의 자기 계시, 성육신, 권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상상력이 갖는 초월적 실재와의 조우는 인격신을 믿는 종교에서의 상상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해탈의 경지는 역겹에 걸친 삼라만상의 생성과 사멸을 관통하는, 단일한 인과의 원리로 작동하는 보편적 진리, 즉 법(法, Dharma)을 깨닫는 자리이며, 법문에 담긴 육도윤회(六道輪回)와 같은 가르침은 상징적, 은유적 언어로 이루어져 현실의 현상을 넘어 초월적 실재를 가리키고 있기에,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그 가르침을 현실에서의 자각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무한한 상상력이 요구된다(Park, 2013: 155-173). 또한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의 깨달음의 과정에 보살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자비와 은덕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의식 속에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원형을 공동체의 관계적 삶 속에서 성찰하여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한다는 면에서 도덕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은 서로 맥을 같이 하지만, 종교적 상상력은 종교성 및 영성을 매개로 초월적 세계에까지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 간다. 이는 키르케고르가 보편적인 윤리적 지평을 역설과 비약으로 뛰어넘어 신 앞에 선 단독자의 입장에서 ‘신앙의 기사’(knight of faith)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장면을 떠올린다.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은 윤리적 기준에서 보자면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신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도약을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Mooney, 1991: 58-61). 이러한 신앙과 윤리의 역설적 관계는 종교와 현실, 종교와 문화 사이에 긴장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성에 기반을 둔 종교적 상상력은 피안(彼岸)의 세계만이 아니라 차안(此岸)의 세계를 함께 다루는 것이요, 내세(來世)와 현세(現世), 영계(靈界)와 지상 세계를 함께 다루는 데에서 그 참 기능이 발휘된다. 종교적 상상력과 도덕적 상상력은 상호 배척의 관계가 아닌, 상호 포용 내지는 상호 보완의 관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종교의 맥락에서는 종교의 세계관을 더 광의의 지평으로 삼기 때문에 종교적 상상력에 좀 더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종교적 상상력이 실현되는 자리는 분명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종교적 상상력이 도덕적 상상력을 포용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 실천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폴 리쾨르(P. Ricoeur)의 ‘등가의 논리’(the logic of equivalence)와 ‘넘침의 논리’(the logic of superabundance)에 대한 설명은 도덕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하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Ricoeur, trans., 2005: 490-512). 리쾨르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에 담긴 원수 사랑의 내용을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넘침의 논리로 해석하고, 31절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에 담긴 황금률을 등가의 논리로 간주한다.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윤리 기준의 최고봉은 호혜성(reciprocity), 즉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 정의이며, 이는 도덕적 상상력이 최고선으로 지향하는 목적지일 수 있다. 하지만 호혜성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등가성을 전제로 하므로 난민 수용 문제와 같이 호혜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Hwang, 2017: 41). 리쾨르는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조건적인 넘침의 논리라고 본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은유로서 호혜성이 성립하지 않는 극단적 경우를 가리킨다. 호혜성마저 뛰어넘어 이웃을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호혜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성이 성립될 수 있는 장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정의가 사랑을 실현하고 사랑이 정의를 키우는 것”이다(Ricoeur, 2005: 510-512; Kim, 2015: 154).

무조건적인 사랑이 호혜성의 판을 키운다는 지평은 종교적 상상력의 산물일 수 있다. 즉, 종교적 상상력은 도덕적 상상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해 준다. 그와 동시에, 종교적 상상

력의 현실에서의 적용은 호혜성에 기반을 둔 도덕적 판단을 매개로 해야 한다. 이처럼 종교적 상상력과 도덕적 상상력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인 동시에 ‘도덕적 인간’(homo moralis)이라면, 종교적 상상력과 도덕적 상상력은 사실 하나의 상상력의 두 양태일지도 모른다.

종교교육에서 종교적 상상력과 도덕적 상상력의 조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면 현 종교교육이 지향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교 전통으로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종교적 지식과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력”(Ministry of Education, 2022: 93)을 기르기 위해선 종교 전통에 내재한 원형을 현실의 문제에 조망하여 지혜로운 가치 판단을 내리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종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 문제의 해결은 종교적 상상력을 도덕적 상상력과 연계시킬 때 가능하다. 이 점에 주안을 두고 아래에서는 종교적 상상력을 종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IV. 종교적 상상력과 종교교육

종교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때, 기존 종교교육이 종교적 상상력의 통로가 되고, 종교적 상상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맥락과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종교교육은 종파의 교리와 사상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려는 데 주안점을 두는 ‘신앙고백적 종교교육’, 가치중립적이고 최대한 객관적 시각에서 다양한 종교적 현상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 그리고 최근 종교의 지식과 가치를 통합하여 종교적 지혜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영성 함양과 실천에 초점을 두는 ‘종교성 교육’의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다(Jung, 2024: 194-195; Kang et al., 2013: 16-21). 종교의 가르침을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지식으로 전달하는 ‘신앙고백적 종교교육’과 종교적 현상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에서는 종교적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습득된 지식이 학습자 개인의 구체적 경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의미 있는 이해와 성찰,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종교성 교육’은 융합적 사고력, 종교성 및 영성 함양, 종교적 지혜의 현실에의 적용 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종교의 원형적 경험과 사례를 다양한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종교적 상상력을 계발하기에 알맞은 교육 방향을 제공한다. 물론 그러한 취지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는지는 또 다른 논의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종교적 상상력은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개념을 종교교육의 맥락으로 가져와 적용한 것이다. 그런 제한된 범위에서 종교적 상상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다. 종교적 상상력은 종교적 전통의 원형적 경험들과 개인의 구체적 경험을 은유적, 서사적으로 연결하여 삶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총체적이고 창조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영성적,

인지적 능력이다.

이 정의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종교 전통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원형적 경험이다. 각 종교 전통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원형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형이란 종교 구성원들의 의식과 경험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핵심적인 상징, 사건, 서사 등을 가리킨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붓다의 보리수 아래서의 깨달음, 모세의 출애굽, 무함마드의 계시 체험 등 종교 시원의 중심인물의 생애와 가르침이 주요하게 포함된다. 이러한 원형적 경험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의 근원이 되는 상징적, 은유적 도식, 체계를 품고 있다. 원형적 경험이 종교인의 현실 경험 속에서 상상력을 통해 접목될 때 창조적인 의미 부여와 가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은유적, 서사적 연결이다. 종교적 상상력은 이러한 원형적 경험을 현재의 삶 속에 은유적, 서사적으로 연결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 신도가 자기의 삶에서 맞닥뜨린 고통 경험을 예수의 십자가 경험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이는 단순한 유비가 아니라 의미의 창조적 구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십자가라는 은유가 갖는 신비,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가 내 삶의 고통을 둘러싼 서사의 맥락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구원의 신비와 연결된 신성한 의미로 다가온다. 이를 통해 개인적 경험은 종교적 의미를 획득하고, 종교적 이야기는 현재의 실재성을 갖게 된다.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원형적 경험과 다양한 비원형적 사례의 교차점에서 종교인의 상상력은 은유적, 서사적 해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실, 교리와 실제, 이성과 감성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러지게 만들고, 전인적 품성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케 한다.

셋째, 삶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이다. 종교적 상상력의 궁극적 지향은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폴 틸리히(P. Tillich)가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으로 표현하였듯이, 인간의 종교성은 삶의 시원과 목적 등에 관한 근원적 질문에 궁극적이고도 총체적인 관심을 집중시킨다(Tillich, 1967: 211-215). 종교적 상상력이 종교의 원형적 경험을 개개인의 삶의 경험에 반추하여 성찰하게 할 때, 인간의 종교성 및 영성은 그 접점을 삶의 궁극적 의미와 연결되는 통로로 삼고 궁극적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종교교육이 인간의 종교성 및 영성을 함양케 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종교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온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이성, 감성, 의지 모두를 통합하여 삶의 궁극적 의미를 탐구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에서의 창조적 적용과 실천이다. 종교적 상상력을 통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과정은 인간 내면에 만족감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부조리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존 폴 레더락(J. P. Lederach)에 따르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환원되지 않고 복잡한 관계 그물망으로 얽혀 있어 쉽게 풀리지 않는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갈등 국면이 왜 오랜 시간 도전 과제로 남았는지 깊이 숙고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관계성으로 ‘평화세우기’(peacebuilding)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Lederach, trans., 2016: 27-28).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적 상상력은 정치적인 논리만으론 풀기 어려운 갈등 상황을 창조적으로 해석하여 평화를 건설해가는 과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목사는 인종차별의 폭력과 불평등 구조의 한 복판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통해 ‘다른 세상’을 소리 높여 외쳤다. 그의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예언자적 상상력이 인종차별을 넘어선 평등한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을 불어넣은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적 상상력의 네 가지 요소, 즉 1) 종교의 원형적 경험 숙고, 2) 삶의 경험으로의 은유적, 서사적 연결, 3) 삶의 궁극적 의미 및 가치 탐구, 4) 현실에서의 창조적 적용과 실천을 종교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특히 중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종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종교적 상상력을 키울 방안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본 논문이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므로, 여기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삶과 종교> 교과서 1종(Cho et al., 2024: 1-172)을 들여다보며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는 교과서의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교육자가 피교육자의 종교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 어떠한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함이다.

먼저 종교적 상상력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원형적 경험을 종교적 배경을 지니지 않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종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주는 원형적 경험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 공동체에서 자라고 배우고 의례에 참여해온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체득된다. 예를 들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회학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 성경의 선지자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 사람의 경우, 기독교의 원형적 경험이 언어와 의식에 깊이 침잠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세계관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교의 원형적 경험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서 학생들이 각 종교의 원형적 경험을 온전히 체득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각 종교의 신도들이 어떤 이야기, 사건, 서사, 상징을 핵심적인 원형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물론 엿보기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겠지만, 종교의 원형적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종교인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어떠한 세계관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상상력이 중요하다. 종교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며 의미를 탐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상상’해 봄으로써 종교인의 종교적 상상력에 참여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습자 본인도 자신의 종교성에 기인하여 나만의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과 종교> 과목에서 여러 종교 전통을 다룰 때, 단순히 종교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종교에서 중요시하는 원형적 경험과 그 원형적 경험이 종교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역사를 다룰 때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 즉 ‘헤지라’(Hegira)가 이슬람인의 의식 속에 자유롭게 신을 섬기기 위한 신앙의 시험과 인내, 해방의 원형적 경험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상상하게 해주어야 한다. 천주교에서 출간한 <삶과 종교> 교과서에는 지면상 간략하게 역사적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 있지만(Cho et al., 2024: 40), 종교 교사가 종교의 원형적 경험의 관점에서 핵심 상징, 사건 등을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종교의 원형적 경험을 학습자가 자기 경험으로 끌어들이며 은유적, 서사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게끔 이끌어주어야 한다. 위 교과서는 ‘고통과 죽음 문제에 대한 종교적 접근’을 다루는 소단원에서 고타마 싯다르타의 고통에 관한 가르침을 먼저 언급하고, 학생들의 탐구 활동으로 자신의 고통 경험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과제를 제시한다(Cho et al., 2024: 27-28). 이는 학습자의 종교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종교 교사는 붓다가 왜 고통의 원인을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집착으로 보았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붓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학습자 스스로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붓다의 이야기가 학습자 본인이 겪은 고통의 서사와 중첩되는지를 살피고 욕망과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상상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상상력을 통해 체득한 지혜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해보고 실천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부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삶과 종교>가 특히 강조하는 지점이고, 실제 교과서에서 하나의 대단원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Cho et al., 2024: 136-160). 종교에서 배우는 지혜로서 인간 존엄성, 생명 존중, 포용과 상호 존중, 정의와 평화 등에 관한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먼저 설명하고, 그 가르침을 공적인 사회 영역에서 실천한 대표적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교단이 주요 사회 문제에 실제로 어떻게 참여해왔는지를 소개한다(Cho et al., 2024: 139-156). 교리적 가르침만을 소개하는 것보다 그 가르침을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 힘쓴 대표적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종교적 상상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종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종교의 원형적 경험이 어떻게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구현하였는지에 대한 종교적 상상력을 따라가 보도록 잘 인도한다면, 그 과정에서 학습자 본인도 자기의 종교적 상상력으로 현실의 공적인 영역을 새롭게 바라보고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본 논문은 마크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개념을 탐구하고 그것을 종교적 상상력과 연결하여 종교교육에서의 적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존슨은 인간의 도덕적 이해가 고정된 법칙의 기계적 적용이 아닌, 감각과 정서,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상상력을 통해 구성되는 창조적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를 영상 도식, 은유적 사상, 원형 효과, 서사적 구조화 등의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종교의 영역에 적용할 때, 종교적 상상력은 종교 전통이 보유한 원형적 경험을 현재의 삶에 은유적, 서사적으로 연결하여 종교적 의미를 구성하고, 인간의 종교성 및 영성을 발현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구성하고 실천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종교적 상상력은 도덕적 상상력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종교적 신념과 현실의 삶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도덕적 이해를 초월과 결합하는 포괄적 지평을 제시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융합적 사고력’은 바로 이와 같은 종교적 상상력의 교육적 실현을 요청한다. 종교적 상상력은 종교 전통의 상징과 서사, 원형적 경험을 학습자 개인의 삶과 연결하여,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실천적 지혜로 전환하는 핵심 역량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종교교육에서 종교적 상상력을 계발하는 네 가지 요소, 1) 원형적 경험의 숙고, 2) 은유적·서사적 연결, 3) 삶의 궁극적 의미와 가치 탐색, 4) 현실 문제への 창조적 실천을 제시하고, 이를 교과서 사례와 연계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종교적 상상력은 도덕적 상상력을 포괄하고 이를 초월의 지평으로 승화시키는 동시에, 현실 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적용을 통해 초월과 현실의 긴장과 조화를 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종교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 종교교육은 단순한 교리 전달이나 가치 중립적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 전통의 원형 경험을 자기 삶에 능동적으로 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평화를 실천하는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quinas, T. *Summa Theologica*.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trans.) (1981). The Summa Theologica of St. Thomas Aquinas Vol. 1. New York: Benziger Bros.
- Bae, S. S. (2008). A Concept and Application of Moral Imagination in Moral Education.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49, 417-442.
- Craig, E.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4. London: Routledge.
- Groome, T. (1998).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 Pastoral Ministry: The Way of Shared Praxi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 Hahn, Robert. (1983). A Note on Plato's Divided Line.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1(2), 235-237.
- Harris, M. *Teaching and Religious Imagination: An Essay in the Theology of Teaching*. 김도일 옮김 (2023). 가르침과 종교적 상상력.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Hwang, J. S. (2017). A Study on the Direction of a North Korea Policy Based on Unification Thought's Concept of Love and Justice. *Research of Unification Thought*, 13, 33-60.
- Johnson, M.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노양진 옮김 (2008). 도덕적 상상력: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경기 파주: 서광사.
- Johnson, M. *Morality for Humans: Ethical Understa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Science*. 노양진 옮김 (2017). 인간의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 경기 파주: 서광사.
- Johnson, M.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이기우 옮김 (1992). 마음 속의 몸: 의미 · 상상력 · 이성의 신체적 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 Jónasson, H. I. (2014). At a Crossroad: The Human Imagination and Educating to Reality in Religious Education. *Cultural and Religious Studies*, 2(1), 59-68.
- Joo, Y. S. (2019.03). Moral Imagination and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63, 419-454.
- Joo, Y. S. (2019.09). Christian Education and Function of Religious Imaginat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1(3), 227-254.
- Jung, M. S. (2024). Exploring Types of Religious Education Suitable for a Plural Liberal Democratic Society. *Faith & Scholarship*, 29(1), 185-208.
- Kant, I. *Critique of Pure Reason*. Smith, N. K. (trans.) (1965). New York: ST Martin's Press.
- Kim, D. H. (2011). Implication of the Idea of Imagination for Moral Education.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3(2), 217-237.
- Kim, H. R. (2015). Paul Ricoeur's Concept of 'Gift Economy' in Love and Justice. *Researches in Contemporary European Philosophy*, 39, 133-158.
- Kim, K. H. (2006). Cultivating Moral Imagination and Moral Education. *Journal of Ethics*, 61, 193-225.
- Kim, Y. L. (2000). Imagin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and The World*, 41, 355-378.
- Lakoff, G., & Johnson, M.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임지룡 외 옮김 (2002). 몸의 철학: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서울: 박이정.
- Lederach, J. P. *The Moral Imagination: The Art and Soul of Building Peace*. 김가연 옮김

- (2016). 도덕적 상상력. 경기 파주: 글항아리.
- Lindbeck, G. A. (1984).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oon, E. Y. (2023). The Diverse Implications of Imagin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76, 267-291.
- Mooney, E. F. (1991). *Knight of Faith and Resignation: Reading Kierkegaard's Fear and Trembling*.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ark, J. D. (2013). A Study of the Buddhist Imagination and Poetic Metaphor of Kim Ki-duk's Movie: Focused on Spiring, Summer, Fall, Winter... and Spiring. *Literary Criticism*, 49, 151-178.
- Park, J. J. (2011). The Connection of Moral Imagination and Moral Judgment.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3(2), 117-139.
- Ricoeur, P. Love and Justice. Choi, H. (trans.) (2005). *Citizen & the World*, 7, 490-512.
- Rosch, E. (1978). Principle of Categorization. Rosch, E., & Lloyd, B. B.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hin, H. W. (2012). A Study on the Moral Imagination as Motivational Factor of Moral Behavior. *Journal of Ethics*, 87, 187-204.
- Tillich, P. (1967). *Systematic 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heelwright, P. (1954). *The Burning Fountain: A Study in the Language of Symbolism*.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White, Kevin. (1985). The Meaning of *Phantasia* in Aristotle's *De Anima*, III, 3-8. *Dialogue*, 24, 483-505.
- 강영택, 유재봉, 박상진, 고원석, 김재춘, 박종보, 임경근, 장화선 (2013). 종교교육론: 학교에서의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학지사. (Translated in English) Kang, Y. T., Yoo, J. B., Park, S. J., Ko, W. S., Kim, J. C., Park, J. B., Im, K. K., & Jang, H. S. (2013). *Theories of Religious Education*. Seoul: Hakjisa.
- 교육부 (2022). 삶과 종교.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9.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 *Life and Religion*. 2022-33.
- 노양진 (2013). 몸이 철학을 말하다: 인지적 전환과 체험주의의 물음. 경기 파주: 서광사. (Translated in English) Noh, Y. J. (2013). *The Body Speaks Philosophy: The Cognitive Turn and the Experientialist Challenges*. Paju: Seogwangsa.

조영관, 김경이, 김윤희, 김홍주, 오지섭 (2024). *고등학교 삶과 종교*. 서울: (사)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ho, Y. K., Kim, K. Y., Kim, Y. O., Kim, H. J., & Oh, J. S. (2024). *Life and Religion*. Seoul: CBCK.